



##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Buddhist Monk Sucheol (815-893) and the Silla Royal Court

---

**저자** 정동락  
**(Authors)** Jung Dong-Rak

**출처** [한국고대사탐구 3](#), 2009.12, 87-120 (34 pages)  
**(Source)**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3](#), 2009.12, 87-120 (34 pages)

**발행처**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ublisher)**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79047>

**APA Style** 정동락 (2009).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한국고대사탐구, 3, 87-120.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210.178.101.\*\*\*  
2020/03/30 15:5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정 동 락\*

- I. 머리말
- II. 洪陟 문하에서의 수학
- III. 新羅王室과의 결연
- IV. 新羅末 實相山門의 향방
- V. 맺음말

### 【국문초록】

秀澈은 815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829년 출가하여, 830년대 초반 경주를 찾은 洪陟을 만나 제자가 되었다. 그 후 雪岳(陳田寺)을 찾았는데, 道義를 만나기 위해 서였다. 하지만 곧 南岳(實相寺)으로 와서 洪척의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835년에 溟州 福泉寺에서 구족계를 수계하였다.

이후 수철은 840년경 洪척이 입적하자 文聖王의 후원으로 실상사에 스승의 부도와 탑비를 건립하고, 사우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러면서 신라왕실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憲安王도 수철에게 귀의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신라왕실과 결연한 것은 景文王대부터이다. 특히, 眞聖女王대에 國師로 책봉되기도 하였다. 경문왕계 왕실은 敎宗계와 함께 禪僧들과 결연함으로써 왕실의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 그가 眞骨출신으로 洪척의 법을 이은 선승이라는 점, 실상사를 통해 南原지역의 민심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경문왕계 신라왕실은 수철과 결연하였다. 수철도 왕실을 통해 산문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여 왕실에 협조하였다.

수철은 893년 5월에 입적하였으며, 탑비는 905년경 건립되었다. 신라왕실에서

\* 대가야박물관 학예사

는 「수철비」를 실상사에 세웠다. 이는 왕실에서 실상사와 실상산문을 親新羅勢力으로 포용하고, 後百濟 쪽으로 이탈하려는 남원지역의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수철의 문인들도 산문의 本山에 스승의 비를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수철의 문인들이 주도하던 실상산문은 905년경에도 여전히 신라왕실과 밀접하였다. 그와 달리 흥척의 또 다른 제자인 安峯寺의 片雲和尚은 甄萱과 연결되었다. 편운이 910년경 입적하자 후백제의 지원으로 편운부도가 건립되었다. 이로보아 905년을 전후하여 실상산문은 수철을 계승한 수철계와 편운계로 분화되었던 듯하다. 수철계는 905년 이전까지 산문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인 친신라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후 견훤의 세력이 강화되자 편운계가 견훤과 결연하면서 親後百濟勢力으로 변하였다.

주제어 : 신라하대, 실상산문, 선종, 흥척, 수철, 편운

## I. 머리말

新羅下代 禪宗의 전래는 불교사상계는 물론 정치·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道義와 洪陟은 중국에 유학하여 南宗禪을 전해온 선종 初傳僧들이었다. 崔致遠은 이들 이후 신라에서 선종이 크게 융성했다고 평가하였다. 먼저 귀국한 道義는 北山(雪岳)으로 은거한데 비해, 흥척은 南岳에 머물면서 왕실의 지원을 받아 實相山門을 개창하였다. 흥척은 도의에 버금가는 신라 선종의 초전승이며, 실상산문은 9山門 중 최초의 산문이었다.<sup>1)</sup> 이에 따라 실상산문과 흥척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2)</sup>

1) 흥척은 “入唐과 歸國은 비록 道義보다 후였으나 開山과 弘法은 九山門 중에 第一 먼저 되었다”(權相老, 「韓國禪宗略史」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

홍척 이후 실상산문은 秀澈和尚(815~893)과 片雲和尚(?~910)<sup>3)</sup>으로 계승되었다. 수철에 대해서는 비문을 판독하고 생애와 선사상 등을 다루었다.<sup>4)</sup> 최근에는 비문과 陰記가 새롭게 판독되었다.<sup>5)</sup> 또, 홍척과 실상산문의 소속 사원, 선승들의 사회적 기반, 선사상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sup>6)</sup> 그리고 수철 비문의 찬자,<sup>7)</sup> 편운화상 부도를 통해 실상산문과 甄萱政權, 신라왕실과의 관계도 검토되었다.<sup>8)</sup>

수철은 홍척을 이은 실상산문의 제2조로서 선종 불교계에서의 위상이 높았다. 특히, 景文王에서 眞聖女王에 이르는 신라왕실에서 귀의하였고, 그 또한 왕실에 협조적이었다. 실상산문은 홍척 - 수철로 이어지는 2대에 걸쳐 왕실과 밀착되었던 것이다. 이는 신라하대의 선종이 왕실보다는 地

集』, 1959, 269쪽), “洪陟은 禪宗九山派 중 最初の 創始者가 되었다”(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96쪽)고 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 2) 홍척과 실상산문에 대한 연구 성과는 曹凡煥, 『新羅 下代 洪陟禪師와 實相山門의 開創』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31쪽에서 상세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金映釜,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 1938 및 權相老, 위의 글, 1959에서도 개략적으로 언급되었다.
- 3) 金包光,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1928 ; 裴宰勳,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2009.
- 4)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 5)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6) 崔柄憲, 앞의 글, 1972 ;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추만호, 「나말려조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나말려조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國史館論叢』 52, 1994 ; 黃有福·陳景富(權五哲 譯), 『韓-中佛敎文化交流史』, 까치, 1995 ; 韓基汶,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a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7) 추만호, 앞의 글, 1991 ; 崔英成,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東洋古典研究』 10, 1998 ; 『孤雲思想의 脈』, 심산출판사, 2008.
- 8) 裴宰勳, 앞의 글, 2009.

方豪族과 밀접하였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기왕의 성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수철의 생애와 신라왕실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수철화상비」와 「편운화상 부도」의 건립과정을 통해 羅末麗初 실상산문의 향방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수철의 생애와 신라말 실상산문의 모습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

〈표 1〉 수철의 생애와 활동

시기	연도	활동 내용
출가 / 수학	815년(헌덕왕 7)	金씨, 경주에서 출생. 쇠락한 眞骨가문 출신.
	829년(홍덕왕 4, 15세)	緣虛律師에게 출가, 太宗대덕에게 경전수학.
	829~835년	경주에 방문한 洪陟의 제자가 됨. 雪岳으로 유력. 實相寺에서 홍척의 인가를 받음.
	835년(홍덕왕 10, 21세)	東京(명주) 福泉寺의 潤大德에게 수계.
교화 활동 / 단월 세력	835~840년(22~26세)	명산승지 순례.
	840년 경(문성왕 2, 26세)	洪陟 입적. 지리산 知實寺(實相寺) 私築. 837~840년 사이 圓鑑玄昱 실상사에 머무름.
	840~860년(26~46세)	문성왕대 홍척 부도와 탑비 건립, 문성왕·현안왕이 귀의.
	861~868년(경문왕 1~8, 47~54세)	경문왕 초 왕궁의 八角堂에서 禪教 同異 설법, 법호를 더해 받음. 惠成大王(金魏弘)과 만남.
	875~885년(헌강왕 1~11, 61~71세)	헌강왕과 대면.
	887~893년(진성여왕 1~7, 73~79세)	진성여왕 즉위 초 왕궁으로 초빙, 國師로 책봉. 端儀長翁가 밀양 深原寺(塋原寺)를 기진하여 주석. 남악의 法雲寺로 이적.
입적 / 입비	893년(진성여왕 7, 79세)	5월 법운사에서 입적. 향년 79, 법랍 58.
	905년(효공왕 9)	金穎(?)이 碑銘을 撰하고, 飲光이 集字(?)함. 시호는 秀澈, 탑명은 楞伽寶月. 實相寺에 탑비 건립.

## II. 洪陟 문하에서의 수찰

수철의 생애는 「有唐新羅國 良州深原寺<sup>9)</sup> 故國師 秀澈和尚 楞伽寶月靈塔碑銘并序」(이하 「수철비」)를 통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결락이 심해 비의 건립연대나 찬자, 서자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비석 뒷면 중앙 부분에 “康熙五十三年甲午四月日 重建”이라는 명문이 있어 1714년(숙종 40)에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에 복각한 것인지, 건립 당시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철비」는 『朝鮮金石總覽』과 『韓國金石全文』 등에 실려 있으며,<sup>10)</sup> 추만호·정병삼 등이 비문을 재구성하고 교감·역주하였다.<sup>11)</sup> 최근에는 정선종이 비문과 陰記를 다시 판독하고, 重建 당시의 사정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현전하는 「수철비」는 “조선시대에 중건할 때 비신을 새로 마련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원래의 비석을 다시 세운 것”이라고 한다.<sup>12)</sup> 즉, 현전하는 「수철비」는 최초 건립 당시의 비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성과에 따라 현전하는 「수철비」를 토대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본다.<sup>13)</sup>

9) 최근의 비문 판독 결과 深源寺의 ‘深’은 ‘鑿’자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源’은 ‘原’자가 분명하다고 한다(정선종, 앞의 글, 2009, 176쪽). 이에 따라 ‘深源寺’를 ‘深原寺’로 표기한다.

10)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 1919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古代篇, 亞細亞文化社, 1984.

11) 추만호, 앞의 글, 1991 ; 鄭炳三,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1992.

12) 정선종, 앞의 글, 2009, 189쪽.

13) 필자는 추만호·정병삼 등이 재구성한 비문을 토대로 발표문을 작성해 ‘한국고대사탐구회 제6회 월례발표회’(2009.10.24, 서강대)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토론자였던 정선종(광주시청)의 교시로 「수철비」가 복각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비

먼저, 수철의 가계와 신분 등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 A. 曾祖父는 위계가 蘇判으로 집안은 眞骨로 빼어나서 慶事가 후손에 까지 미쳤다. 祖는 日新이고 父는 修靜이었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대대로 좋은 법도를 전하여 집안을 온전히 하고 세상을 피하여 보전하려는 맑은 뜻과 … 道의 경지에 들어감을 잘하게 여겼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허망한 꿈과 같음을 문득 깨달아 잠깐 눈 먼 거북이 佛法을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듣고, 불법을 보고는 지체하지 않으셨다(「수철비」).

수철은 몰년이 893년(진성여왕 7)이며, 향년이 79세였다. 따라서 그는 신라하대인 815년(헌덕왕 7)에 출생하였다. 증조부가 蘇判을 지냈고, 집안이 眞骨이므로 신라 宗姓인 金氏로서 慶州 출신이었을 것이다.<sup>14)</sup> 수철의 집안은 증조부대까지는 세력을 떨친 진골이었으나, 그가 태어난 때에는 家格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던 듯하다. 그의 조부와 부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집안을 온전히 보전코자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家勢가 기울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아마 모종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sup>15)</sup>

또, 조부의 이름인 ‘日新’은 유교적, 부의 이름인 ‘修靜’은 불교적 성격이 짙다. 조부는 벼슬에 뜻을 두었으나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부는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수철은 진골출신이었으나 조부 때부터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가문출신이었다. 게다가 수철은 어릴 때 양친

---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표문을 수정하였다. 정선종 선생께 감사드린다.

14) 고익진은 “眞骨 家門”(高翊晉, 앞의 책, 1989, 490쪽), 추만호는 성씨를 ‘김’, 출신지는 ‘지방’, 가계는 ‘진골’로 정리했다(추만호, 앞의 책, 1991, 157쪽의 「표 6」).

15) 崔柄憲, 앞의 글, 1972, 104~105쪽 ; 김두진, 앞의 책, 2007, 55·144·433쪽.

을 여의어 집안은 더욱 위축되었고, 관직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이처럼 수철은 가문적인 한계와 양친의 사망 등으로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B. 志學(15세, 829)에 佛法에 뜻을 두어 緣虛律師에게서 출가하고 天宗大德에게 경전을 배웠다. … 이 때 證覺(師<sup>16</sup>)께서 (왕의) 부름에 응하여 都邑에 거동하니 절하고 하례하였다. 자신이 원하던 바와 들어맞아 제자가 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에 [홍척국사가]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묻자, [수철화상은] “스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라고 대답하였다. / 이미 신묘한 경지에 들어 (결락) 仙境을 찾았다가 雪岳을 떠나(□□仙境 □離雪岳)(「수철비」).

수철은 15세인 829년(흥덕왕 4)에 緣虛律師에게 출가하였다. 출가 사원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경주의 사원인 듯하다. 그리고 天宗大德에게 경전을 배웠다고 하여 敎學(華嚴)을 익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수철에게 새로운 전기가 찾아왔다. 興德王의 부름으로 경주를 방문한 홍척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sup>17)</sup> 이 때 홍척은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若何處來)”라고 물었고, 수철은 “스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爾性何)”라고 대답하였다. 수철과 홍척이 만난 것은 829년에서 具足戒를 수계하는 835년(흥덕왕 10) 사이에 해당한다. 이 사이에 그는 홍척을 만나고, 설악에 들렀다가 다시 실상사로 가서 인가를 받고, 溟州에서 수계했다. 따라서 그가 홍척과 만난 시기는 830년대 초반으로 여겨진다.

16) 정선중, 앞의 글, 2009, 175쪽의 판독문 참조.

17) 홍척과 수철이 처음 만난 곳은 ‘설악산’(추만호, 앞의 글, 1991, 298쪽 및 앞의 책, 1992, 77쪽; 김두진, 앞의 책, 2007, 60쪽), 혹은 ‘실상사’였을 것이라고 한다(曹凡煥, 앞의 책, 2008, 37쪽;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230쪽). 하지만, 수철이 홍척을 처음 만난 것은 홍척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이고, 이후 다시 실상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 C-① 長慶初(821)에 道義가 서쪽으로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西堂智藏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의 광명을 배워서 돌아왔으니, 처음으로 선종(玄契)을 전래한 스님이다. … 마침내 北山에 은둔하였다. … 興德大王이 즉위함(826)에 宣康太子(忠恭)가 監撫가 되어 … 이즈음 洪陟大師가 西堂智藏으로부터 심인을 증득하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南嶽에서 머물고 있었다. 임금이 道를 묻는 法文을 청하였고 대궐에서는 그가 온 것을 경하하였다. … 고국에 돌아온 인물로는 앞에서 말한 北山の 道義와 南嶽의 洪陟, 그리고 시대를 조금 내려와서는 … (『도헌비』).<sup>18)</sup>
- ② 太和 4년(830)에 귀국하여 불교의 最上乘 도리로 우리나라를 비추었다. 興德大王이 편지를 보내 환영하고 위로하며 “道義禪師가 전날에 이미 돌아왔고, 스님(慧昭)께서 이어 돌아오시니 두 보살이 되었도다. … 내가 장차 동쪽 계림의 땅에 靈妙한 吉祥의 집을 이루리라”고 하였다(『혜소비』).<sup>19)</sup>

崔致遠은 「도헌비」에서 北山の 도의와 함께 南嶽의 홍척을 신라 선종의 初傳僧으로 평가하였다. 홍척을 도의와 비견되는 선승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도의와 더불어 西堂智藏의 법을 잇고 826년 경 귀국한 홍척은 남악에 머물면서, 흥덕왕의 귀의를 받아 實相山門을 개창하였다. 특히, 홍척은 흥덕왕의 초빙으로 경주를 방문하여 입궐하였고, 이 때 수철을 만났던 것 같다.

홍척이 왕실을 방문하자 흥덕왕은 법문을 청하였다. 홍척은 선종의 종지를 설명하였고, 흥덕왕과 선강대자의 귀의를 받았다. 이때 國師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sup>20)</sup> 『景德傳燈錄』에는 흥덕왕·선강대자를 홍척의 제자로 수록하고 있다. 홍척은 개혁정치를 추구하던 흥덕왕의 요구

18) 李智冠,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1993.

19) 李智冠, 「河東 雙溪寺 眞鑑禪師 大空靈塔碑文」 위의 책, 1993.

20)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94쪽.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홍척은 입적 후 문성왕대에 국사로 추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에 부응하여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상을 제공함으로써, 선종을 널리 흥포하려고 했다.<sup>21)</sup>

흥덕왕대의 개혁은 822년(헌덕왕 14)에 발발한 金憲昌의 난과 무관치 않았다.<sup>22)</sup> 김헌창 난에는 熊川州를 중심으로 武珍州·完山州·菁州·沙伐州와 國原京·西原京·金官京 등이 가담하였다.<sup>23)</sup> 그런데 난에 가담한 지역들의 중앙에 위치한 남원경이 사료 상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남원을 金官으로 잘못 표기했다거나,<sup>24)</sup> 남원지역이 실제로는 난에 가담했다고도 하고,<sup>25)</sup> 반대로 중립적 입장이었을 것이라고도 한다.<sup>26)</sup> 아마 남원은 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관망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난을 직접 진압하고 즉위한 흥덕왕은 이러한 남원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흥척이 실상사에서 산문을 개창하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830년대 초반 왕실을 방문했던 흥척은 다시 실상사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수철은 흥척과 동행하지 않고, 仙境을 유람하고 雪岳도 찾았다. 여기서 설악은 아마 북산의 陳田寺(혹은 億聖寺)였던 듯하다.

도희는 西堂智藏(735~814)의 법을 잇고 821년(헌덕왕 13) 귀국하였다. 하지만 경주 불교계로부터 魔語라는 비난을 받고 북산으로 은거해 진전사를 개창하였다. 그리고 廉居선사(?~844)에게 법을 부촉하였고, 염거

21) 崔柄憲, 앞의 글, 1972, 95쪽; 高翊晉, 앞의 책, 1989, 528쪽; 李啓杓, 「新羅下代の 迦智山門」 『全南史學』 7, 1993, 7쪽 및 12쪽;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178쪽; 曹凡煥, 앞의 책, 2008, 40~43쪽.

22)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23) 황선영, 「신라시대 金憲昌 亂의 성격」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朱甫暎,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24) 황선영, 앞의 글, 2002, 49쪽 주 17).

25) 曹凡煥, 앞의 책, 2008, 40~41쪽.

26) 朱甫暎, 앞의 글, 2008, 254~255쪽.

는 億聖寺(禪林院)에서 선법을 펼치고 있었다.<sup>27)</sup> 흥덕왕은 중국에서 귀국한 흥척과 慧昭에게 귀의하고 도의를 재평가하면서 선종을 공인하였다. 이렇게 되자 도의-염거의 문하에 여러 선승들이 수학하게 된다. 體澄(804~880)은 827년(흥덕왕 2) 수계한 후 역성사의 염거에게 수학하다가 837년(희강왕 2) 입당하였다.<sup>28)</sup> 또, 利觀(813~880)은 830년 경 출가한 이후 합천 海印寺·靈巖寺를 거쳐 역성사에서 선을 익혔다.<sup>29)</sup> 이처럼 당시 설악(복산) 일대에는 도의-염거의 문하에 체징·이관 등이 수학하고 있었다.<sup>30)</sup>

이러한 상황에서 수철은 도의를 찾아 설악으로 갔던 듯하다. 아마 흥척이 서당지장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선배이자, 먼저 귀국해 복산에 머물던 도의를 찾아보라고 권했던 듯하다. 그런데 도의의 몰년은 820년대 후반이나,<sup>31)</sup> 830년대 초반<sup>32)</sup>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철이 찾았을 당시에는 도의가 매우 연로했거나 생존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진전사·역성사에는 도의의 제자들이 주석하고 있었다. 특히 역성사에는 염거가 머물렀고, 그 문하에 체징과 이관 등이 수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수철은 다시 흥척을 만나기 위해 설악을 떠나 실상사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D. 홀로 운봉(雲峯)으로 발을 옮겨 실상사(實相禪庭)에 이르렀다. [흥

27)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10쪽.

28) 曹凡煥, 앞의 책, 2008, 5~9쪽.

29) 權惠永, 「新羅 弘覺禪師 碑文의 復元試圖」 『伽山 李智冠 스님 華甲紀念 韓國 佛教文化思想史』 上, 1992, 640쪽; 權惠永, 「新羅 道義禪師의 初期 法系와 億聖寺」 『新羅史學報』 16, 2009, 206~209쪽.

30) 나말려초 설악산 지역은 가지산문의 北山系(진전사·역성사 계열)의 근거지였다(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13쪽). 최근 설악산 지역 가지산문에 대해, 雪嶽山門(曹凡煥, 앞의 글, 2009) 혹은 億聖寺門(權惠永, 앞의 글, 2009) 등으로 體澄계와 구분기도 한다.

31) 정동락, 앞의 글, 2003, 23쪽.

32) 김양정, 「道義國師의 生涯와 行跡」 『大覺思想』 11, 2008, 446쪽.

척]國師가 이르기를 “도를 붙이는 것은 오랜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西堂의 가풍을 잘 짓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다. … 얼마 있다가 [835년, 흥덕왕 10] 東原京(溟州) 福泉寺에 이르러 潤法大德에게서 具足戒를 수계하였다. … 이로써 명산승지의 탑에 예배하러 돌아다니시니 / (결락) 參禪에서 꽃술을 드날리고 華嚴에서 향기를 모으셨다. … 祖는 西堂智藏이요 父는 南岳洪陟이라(「수철비」).

남악의 실상사에서 수철을 제회한 홍척은 서당의 법을 천양하는 것은 수철의 몫이라면서 인가했다. 이로써 약관의 수철은 6祖慧能→南嶽懷讓→馬祖道一→西堂智藏→홍척으로 이어지는 남종선의 법맥을 잇게 되었다. 즉, 그는 해동 선종의 초조인 도의에 버금가는 홍척의 법맥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이후 수철은 東原京(명주)의 福泉寺로 가서 法潤大德에게서 구족계를 수계하였다. 법랍이 58세였으므로, 21세 때인 835년(흥덕왕 10)이었다. 복천사는 명주지역의 官壇사원으로, 굴산문의 朗空行寂(832~916)이 855년(문성왕 17)에 수계한 곳이었다.<sup>33)</sup> 그가 굳이 명주로 가서 수계한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아마, 그가 설악의 도의를 찾았던 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다. 수계 이후 수철은 명산승지를 순례하면서 탑을 찾아 참례하고, 참선과 화엄을 익히기도 하였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확인하고 스스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선종(참선)에서 깨달은 바를 화엄(경전)을 통해 확인·점검했던 것이다.

이 시기 수철은 설악의 도의-염거 문하에서 수학했던 가지산문의 선승들과 만났을 것이다. 더불어 당시 명주지역에서 유행하던 진표계 법상종과 의상계 화엄종도 접했을 듯하다. 이처럼 한동안 명주를 비롯해 여러 곳을 순례하던 수철은 다시 知實寺로 되돌아 왔다.

33)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365~366쪽.

E-① 마침내 다시 곧바로 가서 智異山 知實寺를 私築하고 여러 章疏를 남김없이 보시니 ... 그 힘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돌리시고 부처를 이롭게 하는 데는 고요하게 무리를 이끄시니 말없이 절로 알려져 正法大德인 弘□, 前□州 僧正 順□, 宗子선사 등이 와서 제자가 되어 마음을 닦았다(「수철비」).

② 本國王子 金義琮이 전하는 왕명에 따라 東으로 돌아왔다. 開成 2년(837) 9월 12일 본국의 武州 會津에 이르러 南岳 實相寺에 머물렀다. 민애왕·신무왕·문성왕·헌안왕이 잇달아 제자의 예를 다하여 공경하면서 신하의 예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다. ... 開成 말년(840)에 慧目山 기슭에 암자를 만들었으며, 경문왕이 高達寺에 주석하도록 명하였다(「현옥전」).<sup>34)</sup>

E-①의 “遂□夏直往 私築于智異山知實寺”라는 구절이 주목된다. 즉, “다시 곧바로 지리산의 지실사로 왔다”고 하여, 전에 머물던 곳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실사는 實相寺로, 私築은 寺域의 확장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5)</sup>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圓鑑玄昉(787~868)이 837년(희강왕 2) 9월에 귀국해 실상사로 와서 840년(문성왕 2)까지 4년간 머물렀다.<sup>36)</sup> 이때 현옥은 민애왕·신무왕·문성왕·헌안왕 등의 귀의를 받았다. 『조당집』의 내용 중 현옥이 헌안왕(857~860)의 귀의를 받은 것은 실상사가 아니라 慧目山으로 이거한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안왕이 ‘실상사의 현옥’에게 귀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당집』의 오류일 수 있으나, 그가 실상사를 떠난 이후에도 헌안왕이 실상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34) 『祖堂集』 권17, 「東國慧目和尚傳」.

35) 추만호, 앞의 글, 1991, 298쪽;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昉의 南宗禪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14, 2008, 19쪽.

36) 김용선, 「玄昉·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16쪽; 조범환, 앞의 글, 2008, 16~18쪽.

그렇다면 흥덕왕대 이후 민애왕에서 문성왕대에 이르는 왕위쟁탈전 와중에도 왕실에서는 ‘실상사의 현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이 된다. 당시 실상사에는 현옥과 함께 홍척이 주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왕들은 홍척에게도 귀의하였을 것이다. 즉, 「현옥전」에는 실상사의 현옥에게 귀의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홍척에 대한 관심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홍척과 현옥은 각각 馬祖 문하의 西堂智藏과 章敬懷暉(754~815)에게 수학하였고, 정치적 성향도 비슷했다고 한다.<sup>37)</sup> 현옥은 홍척을 통해 신라왕실과 연결되었을 수도 있다.

837~840년 사이 현옥과 수철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 홍척이 열반에 들고 수철이 실상사를 이끌게 되자 현옥의 입지가 좁아져서 혜목산으로 떠났다고 한다.<sup>38)</sup> 여기서 수철이 지실사(실상사)로 돌아와 산문을 ‘사축’한 사실이 주목된다. 수철은 홍척이 입적했기 때문에 실상사로 와서 스승의 장례를 주도한 듯하다. 왕실에 요청하여 홍척의 시호와 탑호를 받고, 부도와 탑비의 건립을 추진했을 것이다. 왕실에서는 홍척과 실상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쉽게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수철은 실상산문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신라왕실에서는 홍척에게 시호를 證覺, 탑호는 凝蓼로 내렸다. 홍척의 부도와 탑비 건립은 수철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듯하며, 그 시기는 문성왕 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수철은 문성왕의 지원 속에 실상사를 증축하였고, 신라왕실과 밀접해졌을 것이다. 수철은 835년 명주에서 수계한 후 명산승지를 순례하다가, 840년(문성왕 2)경 홍척이 입적하자 실상사로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수철은 흥덕왕대 경주를 방문한 홍척을 만나 제자가 되었다. 이후 840년경 홍척이 입적하자 왕실의 지원으로 실상사에 스승의 부

37) 김용선, 위의 글, 2006, 116쪽.

38) 조범환, 앞의 글, 2008, 18~19쪽.

도와 비를 건립하고, 사역을 증축하였다. 이를 계기로 20대 중반의 수철이 실상산문의 제2조로서 나말 선종계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 Ⅲ. 新羅王室과의 결연

840년 이후 수철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僧官職을 역임한 교종 승과 선승들이 문하에 들어와 산문이 번성하였다. 실상사가 僧俗의 결집 처가 되자, 헌안왕은 수철에게 귀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철은 경문왕(861~874), 헌강왕(875~885), 진성여왕(887~896)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景文王系 왕실과 본격적으로 결연하게 된다.

- F-① 咸通 □년에 太師를 추증 받은 경문대왕께서 산에 있는데 부르시니 걸음을 옮겨 급히 뜻을 좇으셨다. 하루는 八角堂에서 敎禪의 同異에 대해 물으니 “깊은 궁결에는 예로부터 친개나 되는 迷路가 있으나 □□는 끝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 이에 □禪을 펼쳐 그림과 같이 단계지어 설명하시니 왕이 마음 깊이 기뻐하며 깨달으셨다. … 서로 만나보고 나서 [法號를] 더해 주셨다. 그때 惠成大王(金魏弘)이 王家를 위해 자신의 덕을 덜어 잘 화합하였는데 … (『수철비』).
- ② 헌강대왕께서 왕위를 이어 자주 서신을 보내시므로 거동을 옮겨 (결락) 이때 前國統 惠威대법사와 泉□法대덕과 비구 (결락) 愼孚가 지혜와 실행이 모두 뛰어나 승속이 함께 따라 마음 씀이 없이 이치에 들어맞음을 알고는 만나 … 왕족들도 / 스승으로 모시고 줄을 지어 하례하니 예의는 멀리 (결락)이 없고 도는 더욱 높아 졌다. 임금과 백성에 대해서 대사는 법칙을 두지 않고 군이 구별을 얹으니 … (『수철비』).
- ③ 우리 태위양왕(진성여왕)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垂衣)에 고달파하시고는 (임금의 자리를) 헌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하였으

니, 이에 허물을 잘라내는 것을 따름으로써 번잡하고 시끄러운 일을 억제하고자 하였다.<sup>39)</sup> ... 가까이 모시고자 하여 대사를 도성 안(寔內)에 거처하게 하였으나,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셨다. 그래서 특별히 端儀長公主께 특별히 칙령을 내려 深源山寺에 대사께서 머물도록 요청하여 널리 미혹한 중생을 제도하게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영원)이라 부르지 않으니 / 심지를 밝혀주는 瑩原寺를 말함이 아니겠는가(「수철비」).

경문왕과 수철이 궁궐에서 대면한 것은 咸通 □년이었다. 아마, 860~868년 사이였을 것이다. 좀 더 추론해 본다면 즉위 후 861년 도헌의 초빙이 무산된 직후로 보인다. 경문왕은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禪敎의 同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철을 초빙하여 직접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수철은 “깊은 궁궐에는 예로부터 천개의 迷路가 있으나 (불필요?)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해 궁궐의 구조를 비유하여 그림과 같이 단계지어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이에 경문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깨닫고, 범호를 더해 주었다.

경문왕은 실상산문·성주산문·봉림산문·사자산문·동리산문·가지산문·오관산선문의 선승들과의 결연을 통해 선종계의 협조를 유도하고,<sup>40)</sup> 皇龍

39) 최영성, 앞의 책, 2008, 267쪽.

40) 경문왕은 즉위 후 道憲(초청 거부, 861년경), 玄昱(高達寺 이거 명, 861년 경), 大通(月光寺 주지 명, 867년경), 道允(雙峰寺 이거 명), 梵日(초청 거부, 871년), 無染(대면 후 국사책봉, 상주 深妙寺 이거 명, 871년), 順之(편지를 보내 귀의, 874년 경) 등의 선승들에게 귀의하였다. 더불어 慧徹(담비 건립, 872년), 體澄(迦智山寺를 宣敎省에 소속)을 지원하였다(추만호, 앞의 책, 1992, 154~155쪽의 「표 5」; 曹凡煥,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敎政策」 『新羅文化』 16, 1999; 韓基汶, 앞의 글, 2001a, 299~302쪽; 曹凡煥, 앞의 책, 2008). 현욱·대통·도윤·수철·무염 등은 상경 대면하거나 왕실에서 마련한 사원에 주석하였다. 도헌은 861년경에는 부름을 거절하였지만, 864년(경문왕 4)에는 경문왕의 누이인 端儀長翁主가 기진한 賢溪山 安樂寺(원주 居頓寺)로 이거하였다. 반면, 범일은 경문왕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승들이 경문왕의 귀

寺를 중심으로 교종계를 통합<sup>41)</sup>하는 등 불교계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교선을 포용함으로써 어느 한 불교세력의 독주가 아닌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했던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선교의 동이나 優劣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했다. 그것에 대해 수철은 “교와 선이 모두 필요하다”는 敎禪並立的<sup>42)</sup>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철의 제언은 경문왕이 추진하려던 불교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경문왕은 수철의 설법을 배경으로 선교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나갔는지도 모른다.

또한 수철은 金魏弘(?~888)<sup>43)</sup>과도 만났다. 위홍은 “왕가를 위해 자신의 덕을 덜어 화합”하였고 또 수철을 깊이 공경했다고 한다. 그는 경문왕의 同母弟로 왕의 정책을 일선에서 보필한 인물이었으며, 현강왕·진성여왕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국을 이끈 주역이었다.<sup>44)</sup> 경문왕은 文翰·近侍기구의 확장 등 관제개혁을 통해 국왕의 권력 집중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sup>45)</sup> 특히, 아우인 김위홍과 함께 경문왕계 왕실의 기반을 마련코자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철로부터 선과 교의 동이 문제를 비롯한 불교계의 재편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수철은 경문왕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후 현강왕과 진성여왕 등도 경문왕의 불교정책을 계승해 나갔다.

---

의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41) 曹凡煥, 앞의 글, 1999, 44쪽.

42) 추만호, 앞의 글, 1991, 300쪽 ; 앞의 글, 1994, 230쪽 ; 曹凡煥, 「新羅 下代禪僧과 王室」, 『新羅文化』 26, 2005, 273쪽.

43) 權英五,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大丘史學』 76, 2004 ; 全基雄, 「憲康王代の 정치사회와 ‘處容郎忘海寺’條 설화」, 『新羅文化』 26, 2005.

44) 權英五, 앞의 글, 2004, 60~61쪽 ; 김창겸,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2008, 868쪽.

45) 李基東,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74쪽 및 263~264쪽.

수철은 헌강왕대에도 왕실을 방문했던 듯하다. 당시는 김위홍이 上大 등이었는데, 그를 비롯한 중앙귀족들이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헌강왕은 실상산문·봉림산문·성주산문·희양산문·동리산문·사자산문·오관산선문·가지산문 등의 선승들과 결연코자 하였다.<sup>46)</sup> 더하여 황룡사 등 교종 불교계에 대해서도 지원하였다.

정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진성여왕도 수철에게 귀의하였다. 진성여왕은 즉위 초 梵日을 초빙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수철을 왕궁으로 초빙한 듯하다. 이 때 수철을 국사로 책봉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7)</sup> 그리고 수철이 떠나려고 하자 端儀長公主로 하여금 良州 深源山寺를 기진케 하여 머물도록 배려하였다. 단의장공주는 864년 도헌에게 원주의 安樂寺를 제공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양주의 심원산사를 수철에게 내놓았다. 심원사는 원래 塋原寺로 단의장공주의 원당이었는데,<sup>48)</sup> 국왕 측근 친족의 원당을 헌납함으로써 수철을 붙들어두려고 했던 것이다.<sup>49)</sup>

진성여왕대가 되면서 왕실의 초청에 응하는 선승들이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진성여왕 즉위 초에는 수철을 제외한 다른 선승들은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후반기인 893년에 순지, 894년경에 행적이 왕실을 찾았다.<sup>50)</sup> 이러한 상황에서 진성여왕은 수철을 초빙하여 국사로 책봉하였

46) 헌강왕은 즉위 후 利觀(대면, 楞嚴經 인용 설법, 875~876년 사이), 무염(대면, 能官人 설법, 875년경), 범일(초청 거부, 880년), 도헌(대면, 왕이 妄言師로 삼음, 881년), 道誑(대면, 折中(대면, 왕이 興寧禪院을 中使省에 소속), 순지(왕이 죽자 문인을 보내 조문, 886년) 등에게 귀의하였다. 더불어 체징(884년)과 이관(885년)의 탑비를 건립하고, 무염을 위해 深妙寺碑를 직접 찬하였다.

47) 수철의 국사책봉 시기는 “진성여왕 때”(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394쪽의 「표 1」), 혹은 “무염이 입적한 이후인 진성여왕대 전반”으로 추정한다(남동신, 앞의 글, 2005, 95쪽).

48) 韓基汶, 「高麗時期 密陽 塋原寺의 所屬變化와 그 背景」, 『金潤坤 敎授 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2001b, 693쪽.

49) 韓基汶, 앞의 글, 2001a, 268~269쪽.

50) 정강왕은 무염(초청 거절, 886년 경)과 절중(일방적 귀의, 886년 경) 등을 초청

고, 양주(밀양) 심원사를 기진하여 머물게 했다. 70대의 노령이었던 수철을 배려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선종불교계를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실상산문의 이탈을 막고자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 심원사가 위치한 밀양은 김해에서 멀지 않고, 낙동강 수계와 연결되어 남쪽으로는 남해에, 북으로는 상주에서 계림령을 넘어 북부지역과 통할 수 있는 곳이었다.<sup>51)</sup>

이처럼 수철은 20대 중반인 840년(문성왕 2)경 홍척의 입적과 함께 신라왕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후 헌안왕의 귀의를 받은 듯하지만, 본격적으로 왕실과 결연한 것은 경문왕대부터였다. 이후 헌강왕·진성여왕으로 이어지는 경문왕계 왕실의 귀의를 받으면서, 왕실의 불교정책 추진에 조언하는 등 협조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 범일이 경문왕(871년), 헌강왕(880년), 정강왕 혹은 진성여왕(887년) 등이 국사로 책봉하였으나 끝내 사양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sup>52)</sup>

경문왕은 흥덕왕 사후(836년) 치열하게 전개되던 왕위쟁탈전을 일단락 시키면서, 왕실의 안정을 되찾았다. 이 때문에 경문왕은 ‘왕권 및 왕통의 재확립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문왕과 헌강왕의 치세는 평화시대·小康期로 평가된다.<sup>53)</sup> 특히, 경문왕계 왕실은 기존의 교종계는 물론 선승들과의 결연을 통해 선종불교계의 협조를 얻어냄으로써,<sup>54)</sup> 왕실의 권위와

---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뒤이어 즉위한 진성여왕은 범일(國師책봉 거절, 887년), 절중(元香寺를 禪那別觀으로 삼게 함, 888년), 審希(초청 거부, 888년), 순지(대면, 893년), 行寂(대면, 894년) 등에게 귀의하였다. 또, 무염과 대통의 비(890년)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왕의 초청에 응한 선승들은 전대에 비해 많지 않았다.

51) 韓基汶, 앞의 글, 2001b, 706쪽.

52) 鄭東樂, 「通曉 梵日(810~889)의 生涯에 대한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24, 2001, 80쪽.

53) 김창겸, 앞의 책, 2008, 838쪽.

54)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大丘史學』 22, 1983, 41쪽.

정당성을 확보하고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sup>55)</sup> 수철에 대한 신라왕실의 결연은 이러한 불교정책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수철은 진골귀족 출신이어서 왕실에서 호감을 가졌을 법하다. 또 선종 초전승인 홍척의 법을 이었다는 점과 실상산문이 가장 먼저 개창된 산문이라는 상징성도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산의 도의, 남악의 홍척’이라는 말이 생길만큼 실상산문은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철은 실상산문의 제2조로서 대표성을 지닌 만큼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라왕실에서는 수철과의 결연을 통해 실상산문과 선종불교계의 협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상사를 통해 남원지역의 민심을 왕실 쪽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듯하다. 진성여왕대에 이르면 광범위한 농민항쟁이 발생하고 지방세력이 대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철의 협조는 더욱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철도 신라왕실에 적극 협조하였다. 헌덕왕대에 귀국한 도의는 북산(설악)으로 은거하였다. 그에 비해 흥덕왕대에 귀국한 홍척은 남악에 머물면서 왕실의 지원으로 산문을 개창하였다. 수철은 도의와 홍척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산문의 유지·확대에는 왕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에 왕실의 후원을 통해 산문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수철은 스승인 홍척의 영향을 받아, 경문왕계 왕실의 개혁추진에 협조하였고, 그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진성여왕이 제공한 심원사에 머물던 수철은 서울과 너무 가깝다고 하여, 제자인 粹忍과 義光이 머물던 남악 북쪽의 法雲寺로 이석한 듯하다.<sup>56)</sup>

55) 曹凡煥, 앞의 글, 1999, 43~44쪽 ; 앞의 글, 2005, 275쪽 ; 全基雄, 앞의 글, 2005, 83~85쪽 ; 김창겸, 앞의 글, 2008, 858쪽.

56) 배재훈은 수철이 심원사에서 범운사로 이석한 시기를 889년 이후, 남악 지역에서 실상산문을 위협하는 세력들(남악 지역의 호족들이거나 무주를 기반으로 봉기한 견훤)을 견제하거나 물리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한다(裵宰勳, 앞의

G. 얼마 되지 않아 都城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개울과 돌이 있는 맑은 곳으로 가고자 하여 … 계자 粹忍과 義光이 각기 南岳의 북쪽들에 살았는데 … 들관으로 빼어나 法雲寺라 이름붙이시니 /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절경의 절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十地境』을 지으시어 三山을 진압하신 것은 그 감응이 응하신 것이다(「수철비」).

법운사에 머물던 수철은 문인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怪力亂神에 힘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근의 실상사는 물론 실상산문 내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특히, 수철은 『十地境』을 지어 三山을 진압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의 교화력과 문인들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남악 북쪽에 위치한 3산 지역, 즉 운봉·남원지역 일대를 안정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889년 이후 지방사회의 상황을 상기한다면 신라왕실에서 수철에게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철이 입적한 곳이 법운사인지 심원사인지 분명하지 않다. 비문 내용으로 보아 법운사로 보이지만, 碑題에 ‘심원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료 H에서 “수철의 입적 소식을 들은 심원사에 머물던 이들이 추모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으로 보아, 법운사에서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수철은 889년(진성여왕 3)의 전국적인 농민항쟁, 892년 견훤의 武珍州에서의 자립 등<sup>57)</sup>을 목격한 후 893년에 입적하였다. 수철은 신라왕실에 협조적이었으며, 신라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특히, 경문왕계 왕실이 추진하는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신라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그가 입적한 다음해인 894년 2월 최치원이 ‘時務 10여조’를 올리자 진성여왕은 이를 嘉納하고 阿飡에 임명하였다.<sup>58)</sup> 시무

글, 2009, 223쪽).

57) 『三國史記』권11, 신라본기11, 진성여왕 3년 및 5·6년.

책은 대체로 왕실을 통해 신라사회를 개혁하려는 정책방향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sup>59)</sup> 수철의 신라왕실에 대한 인식도 최치원의 그것과 상통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 IV. 新羅末 實相山門의 향방

수철은 893년(진성여왕 7) 5월 입적하였다. 향년 79세, 법랍 58세였다. 비문에는 “일국의 스승이자 佛法으로 국왕을 감화시킨 선승”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문인은 심원사(?)의 款休·飲光과 법운사의 粹忍·義光 등이다. 수철의 입적 소식을 접한 진성여왕은 東宮官 奉食朗인 王輅를 보내 위문하고 시호를 ‘秀澈’, 탑호로 ‘楞伽寶月’을 내렸다. 그리고 장례절차는 물론 부도탑 건립도 왕실에서 지원하는 등 극진히 예우하였다. 장례는 수철의 문인인 법운사·심원사의 선승들이 주도했을 것이다. 그 후 관휴 등이 행장을 갖추어 탑비의 건립을 요청하자, 왕명으로 비문을 찬하게 했다.

H. 돌아가신 것은 景福 2년(893, 진성여왕 7) 5월 4일이다. 문도들을 불러서 … 향년이 79요, 법랍이 58이다. … 대사께서 돌아가심을 듣고 瑩原寺에 머물던 이들이 추모하여 눈물을 흘뿌리며 슬퍼하였다. 진성여왕께서 … 東宮官 奉食朗인 王輅에게 왕명을 전해 위문하도록 하였다. … 秀澈이라는 시호와 楞伽寶月이라는 탑호를 내리셨다. 그 후 8차레나 齋를 베풀어 100일의 예를 갖추었으며 갖가지 향들을 모두 왕실에서 내주었다. … 門人 款休는 해를 쫓아가고 바다를 뛰어 넘을 만큼 뛰어난 분들이다. … 붓끝으로 龍과 같은 행장을 적어 성스러운 거북의 신령스러움을 보여 천년만년 이르고자 하였다(『수철비』).

58)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진성여왕 8년.

59)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232~235쪽.

수철의 비문을 찬한 시기는 진성여왕대,<sup>60)</sup> 혹은 효공왕대(898년 이후)<sup>61)</sup>로 파악되고 있다. 결락으로 잘 알 수 없지만, 입적한 뒤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었던 듯하다. 탑비의 건립은 진성여왕대(또는 효공왕대),<sup>62)</sup> 혹은 고려 초<sup>63)</sup>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天祐 2년(905)으로 파악되었으며,<sup>64)</sup> 최근 “□□二年龍集乙丑十月之望建”으로 음기가 관독되어 ‘천우 2년’으로 밝혀졌다.<sup>65)</sup> 즉, 「수철비」는 905년 10월 15일에 세워졌던 것이다. 비문의 撰者는 金穎, 集字者는 문하 제자인 飮光, 나머지 한 인물은 篆額을 쓴 것으로 보인다.<sup>66)</sup> 이처럼 「수철비」의 찬술은 진성여왕 혹은 효공왕대에 김영이, 입비는 905년 10월에 이루어졌다.<sup>67)</sup> 그런데 「수철비」의 비제가 “有唐新羅國 良州 深原寺 故國師 秀澈和尚…”으로 되어 있다. 입적은 범운사, 비제에는 심원사, 실제 건립지는 실상사인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인다. 아마 신라왕실에서는 수철의 비를 심원사에 건립하려고 했으나,<sup>68)</sup> 결국은 실상사에 세워졌던 것이다.<sup>69)</sup>

60) 추만호, 앞의 글, 1991, 290~293쪽 ; 정병삼, 앞의 글, 1992, 158쪽.

61) 최영성, 앞의 책, 2008, 275쪽.

62) 『朝鮮金石總覽』, 허흥식, 정병삼 등은 893년으로 추정했다(朝鮮總督府, 앞의 책, 1919 ; 許興植, 앞의 책, 1984 ; 鄭炳三, 앞의 책, 1992). 추만호는 895년 전후, 葛城末治는 897년 7월 이후, 최영성은 효공왕 이후(898년 이후)였을 것이라고 한다(葛城末治, 『朝鮮金石考』, 1935, 267~272쪽 ; 추만호, 앞의 글, 1991, 306쪽 ; 최영성, 앞의 책, 275쪽).

63) 韓基汶, 앞의 글, 2001b, 693~695쪽.

64) 金包光, 앞의 글, 1928, 34쪽.

65) 정선종, 앞의 글, 2009, 177쪽.

66) 정선종은 음광의 역할을 ‘冝十’으로 관독하고 “자료를 모은 역할”, 나머지 한 인물은 “書篆者”라고 한다(정선종, 앞의 글, 2009, 176쪽 및 189쪽 주 39).

67) 「수철비」의 찬자를 金穎, 건립 연대는 효공왕대(897~912)로 보거나(李基東, 앞의 책, 1984, 262쪽), 찬자를 崔致遠 서자를 金穎으로(추만호, 앞의 글, 1991, 293쪽), ‘898년 이후 김영이 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최영성, 앞의 책, 2008, 275쪽).

68) 김영수는 “秀澈의 塔碑를 實相本山에 勅建하면서 曾히 就任하였던 寺名을 삼

실상사가 위치한 지리산 동쪽의 남원(운봉)지역은 나주 會津에서 왕경으로 이어지는 신라의 대당 교통로<sup>70)</sup> 상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다.<sup>71)</sup> 신라왕실에서는 이곳에 「수철비」를 건립함으로써 실상산문을 왕실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 남원지역의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이다.<sup>72)</sup> 실상사는 심원사보다 당시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다. 게다가 수철은 실상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그의 장례나 부도 건립도 실상사에서 이루어졌다. 신라왕실에서는 남원지역의 전략적인 조건과 실상사의 선종불교계에서의 입지, 수철화상의 위상 등을 고려해 실상사에 비를 건립한 것이 아닐까 싶다.

수철의 문인들도 실상사가 개창조인 홍척이 건립한 중심사찰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또, 수철이 실상산문의 제2조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수철비」의 비명에는 「祖가 서당지장, 父가 남악홍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철의 문인들은 「수철비」를 실상사에 건립해서 스승과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했던 것이다. 더하여 실상산문의 주도권과 대표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처럼 신라왕실, 수철의 문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실상사에 「수철비」가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

---

느라고 碑의 額題에 ‘良州 瑩厚寺(瑩原寺의 誤)’로 쓴 것”으로 파악하였다(金映遂, 앞의 글, 1938, 516쪽).

69) 배재훈은 “실상산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신라왕실의 의도에 의해 심원사가 강조된 것이며, 왕실의 그러한 요구를 수철의 제자들이 수용하여 왕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을 것”이라고 한다(裴宰勳, 앞의 글, 2009, 223쪽).

70) 權惠永,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49, 1996, 7쪽.

71) 추만호, 앞의 글, 1991, 306~307쪽 ; 최근영, 『통일신라시대의 지배세력연구』, 신서원, 1993, 123~125쪽 ; 權惠永, 앞의 글, 1996, 7쪽 ; 韓基汶, 「新羅 下代 眞鑑禪師의 活動과 梵唄 敎化의 意義」, 『大丘史學』 89, 2007, 109쪽.

72) 다른 소경과 달리 남원지역에서 유독 호족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삼국통일 직후부터 특별한 혜택과 관심을 둔 결과라고 한다(최근영, 앞의 책, 1993, 124~125쪽).

으로 보인다.

이처럼 893년 수철의 입적 후에도 그의 문인들은 신라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905년경 「수철비」가 실상사에 세워진 것은 친신라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홍척-수철로 이어지는 실상산문의 수철 계<sup>73)</sup>는 889년의 농민항쟁, 892년 견훤의 무진주 점령, 900년 완산주 도읍 등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친신라왕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905년경은 견훤이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실상사는 여전히 신라왕실과 결연되었다. 이점은 달리 말하면 후백제의 견훤정권은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실상사에 대해 완전하게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sup>74)</sup>

한편, 홍척의 또 다른 제자로는 片雲和尚(?~910)이 있다. 그의 부도는 는 아래와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I. 開創祖인 洪陟의 제자로 安峯寺의 개창조인 片雲和尚의 부도이다.

正開 10년 庚午歲에 건립하였다(「편운부도」).<sup>75)</sup>

편운은 홍척의 제자인 동시에 安峯寺의 개창조로,<sup>76)</sup> 그의 부도는 正開 10년 庚午歲에 건립되었다. ‘政開’(914~918)라는 태봉의 연호가 있지만 ‘庚午’와는 간지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개 10년은 견훤의 후백제 연

73) 수철의 문인들은 주로 심원사, 범운사 등을, 편운화상의 문인들은 안봉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들을 실상산문 내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秀澈系’, ‘片雲系’로 구분하였다.

74) 배재훈도 “최소한 893년 수철화상이 입적한 이후부터 어느 시점까지 견훤의 세력은 실상사 인근 지역에 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철의 부도와 담비가 제작되는 동안 실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실상산문은 견훤과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 한다(裵宰勳, 앞의 글, 2009, 223쪽).

75) 金包光, 앞의 글, 1928, 33쪽 ; 鄭炳三, 「實相寺 片雲和尚浮圖」, 앞의 책, 1992, 172쪽 ; 裵宰勳, 앞의 글, 2009, 206쪽.

76) 金映遂, 앞의 글, 1938, 156쪽.

호로 910년(효공왕 14)이라고 한다.<sup>77)</sup> 후백제는 900년에 개국하였으며, 901년이 정개 원년이 된다.<sup>78)</sup> 편운이 개창한 안봉사는 성주군의 사원으로 보거나,<sup>79)</sup> 부도가 위치한 실상사 남쪽의 曹溪庵 舊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sup>80)</sup>

편운부도에 후백제의 연호가 쓰인 것은 실상사는 물론 남원지역이 910년경에는 후백제의 세력권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부도 건립을 추진했던 편운의 문인과 단월세력들도 견훤의 지지세력이 되었을 것이다. 편운은 견훤과 연결된 선승이었으며, 그의 부도는 후백제의 지원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정개’라는 연호를 쓴 것이다.<sup>81)</sup> 따라서 910년경에는 안봉사와 실상사는 편운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견훤과 결연하였으며, 친후백제세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운봉 및 남원지역이 완전히 견훤의 지배권 속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수철비」가 건립되는 905년에서 편운부도가 세워지는 910년의 짧은 시기를 전후하여 실상사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즉, 실상산문은 수철계와 편운계가 각각 신라왕실과 후백제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노선이 달랐던 것이다.

견훤은 901년에 ‘정개’라는 연호를 반포하는 등 무진주·완산주 등 전라도 일원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사는 905년까지 여전히 친신라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실상사가 위치한 남원(운봉)지

77) 金包光, 앞의 글, 1928, 34쪽 ; 金映遂, 위의 글, 1938, 516쪽 ; 鄭炳三, 앞의 글, 1992, 172쪽 ;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53쪽 ; 裴宰勳, 앞의 글, 2009, 215~219쪽.

78) 이도학, 『진훤이라 불러다오』, 푸른역사, 1998, 98쪽 ; 裴宰勳, 앞의 글, 2009, 219쪽.

79) 金包光, 앞의 글, 1928, 33쪽 ; 이도학, 앞의 책, 1998, 96~98쪽 ; 裴宰勳, 앞의 글, 2009, 214쪽.

80) 조범환, 「후백제 견훤정권과 선종」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357쪽의 주 30).

81) 조범환, 위의 글, 2001, 356~359쪽 ; 裴宰勳, 앞의 글, 2009, 228쪽.

역도 견훤의 영향권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905년 이후 실상사는 급격히 견훤에 의해 잠식된다. 이렇게 되자 그간 친신라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수철계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대신, 흥척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안봉사의 편운이 견훤과 연결되면서 새롭게 부상하였다. 편운과 견훤의 결합은 905년에서 910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907년에 후백제군이 일선군 이남의 10여 성을 점령하였는데, 이때 견훤과 편운이 연결되었을 것이라고도 한다.<sup>82)</sup> 편운이 910년경 입적하자 그의 문인들이 주도하여 견훤의 지원을 받아 부도를 건립하였다.

이처럼 910년을 전후해서 실상산문은 정치상황의 변화와 단일세력을 둘러싸고 산문 내의 분화·대립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화엄종의 海印寺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해인사는 802년(애장왕 3) 왕실의 지원으로 창건된 후, 9세기 말에는 최치원과 그의 母兄인 승 賢俊과 定玄 등이 머무르는 등 신라왕실의 願堂으로 기능하였다.<sup>83)</sup> 하지만, 10세기 이후 해인사는 후백제 견훤의 복전인 觀惠의 南岳派와 고려 王建의 복전인 希湖의 北岳派가 대립하고 있었다. 『海印寺古蹟』에는 “희랑은 태조 왕건이 백제 왕자 月光과 싸울 때 神兵을 보내 도움을 주었다”고 전한다. 이는 해인사와 대야성(합천)을 둘러싼 후백제와 고려의 대립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희랑이 태조를 도와 월광(견훤?)을 물리쳤다는 것으로 보아 해인사는 태조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북악의 대립은 고려 光宗대 북악의 범손인 均如에 의해 통합된 것으로 보아, 후삼국 통일 이후에도 갈등의 양금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해인사는 9세기 말까지 신라왕실의 원당이었으나, 10세기에 접어들면서 후백제와 고려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그 후 후삼국 통일 즈음에는 고려를 지지하

82) 裴宰勳, 앞의 글, 2009, 227~228쪽.

83) 김상현, 「9세기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006 ; 이영호, 「대가야의 멸망과 고려지역의 변화」 『고령문화사대계』 I (역사편), 2008.

는 쪽으로 향방이 결정되었다. 이는 910년을 전후하여 단월이 신라왕실에서 후백제로 바뀌는 실상사의 향방과 사뭇 비슷하다.

실상사는 892년 견훤의 무진주 점령, 900년 완산주로의 천도, 905년 「수철비」가 건립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철계를 중심으로 친신라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견훤이 남원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편운계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친후백제적인 성향으로 바뀐다. 이는 견훤정권의 실상산문을 비롯한 선종불교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견훤은 친신라적 색채를 지닌 실상사를 자신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철계가 아니라 편운계를 지원했던 것이다. 견훤이 시도한 실상산문 포섭정책은 성공을 거두었고, 남원(운봉) 지역의 단월세력들도 후백제 쪽으로 경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상산문 내의 수철계와 편운계의 분화를 시사한다. 두 계파는 단월세력과 산문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경쟁관계에 있었던 듯하다. 수철계는 전통적으로 신라왕실을 지지하였고, 편운계는 후백제 견훤을 선택하였다. 수철계는 신라왕실과의 관계를 통해 실상산문 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편운계는 후백제와 결연하면서 자신들 중심으로 법계를 공식화하였다. 이는 나말려초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선종산문이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 V. 맺음말

일반적으로 新羅下代の 禪宗은 중앙의 왕실보다는 地方豪族 세력과 밀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實相山門의 경우 洪陟과 秀澈和尚의 2대에 걸쳐 신라왕실과 결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수철화

상(815~893)의 생애와 활동을 신라왕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片雲(?~910)을 통해 신라말 실상산문의 향방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수철은 815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원래 眞骨귀족이었으나, 조부 때부터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집안 사정이 배경이 되어 출가하였다. 그는 829년 경주에서 출가하였으며, 830년대 초반 왕실을 방문한 홍척을 만나 제자가 되었다. 이후 雪岳(陳田寺)을 찾았는데, 道義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듯하다. 다시 南岳(實相寺)의 홍척을 찾아 인가를 받음으로써 西堂智藏 - 홍척으로 이어지는 법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835년에는 명주의 福泉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명산승지를 순력하면서 선종과 화엄을 익힌다.

수철은 840년경 홍척이 입적하자 文聖王의 후원으로 스승의 부도와 탑비를 건립하고, 실상사를 크게 확장하였다. 이후 憲安王도 수철에게 귀의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신라왕실과 관계를 맺는 것은 景文王대부터이다. 경문왕은 수철을 왕실로 초빙하여 禪敎의 同異 문제를 비롯한 불교계의 개혁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수철도 敎·禪竝立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혁정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憲康王도 수철에게 귀의하여 왕실로 초청하였고 수철도 응하였다. 眞聖女王은 수철을 國師로 책봉하여 王京에 머물도록 했다가, 밀양의 深原寺를 畜進하여 주석토록 하였다. 경문왕계 왕실은 교종계와 함께 선승들과 결연함으로써 왕실의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 그가 진골출신으로 홍척의 법을 이은 선승이라는 점, 실상사를 통해 남원지역의 민심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수철과 결연하였다. 수철도 왕실을 통해 산문을 유지·발전시키려고 협조하였다. 그는 경문왕계 왕실이 추진하는 개혁정치를 통해 신라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철은 893년 5월에 法雲寺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탑비는 신라왕실의

지원으로 905년경 실상사에 건립되었다. 신라왕실에서는 실상사와 실상산문을 친신라세력으로 포용하고, 後百濟 쪽으로 이탈하려는 남원지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수철의 문인들 역시 산문의 本山에 스승의 비를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수철의 문인들이 주도하던 실상산문은 甄萱이 892년 武珍州를 점령하고, 900년 完山州에 도읍을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신라왕실과 밀접하였다. 그와 달리 흥척의 또 다른 제자인 安峯寺의 片雲和尚은 견훤과 연결되었다. 편운이 910년경 입적하자 후백제의 지원으로 편운부도가 건립되었다. 이로 보아 905년을 전후하여 실상산문은 수철을 계승한 수철계와 편운계로 분화되었던 듯하다. 수철계는 905년 이전까지 산문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인 친신라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후 견훤의 세력이 강화되자 편운계가 견훤과 결연하면서 친후백제 세력으로 변하였다. 이는 나말려초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선종산문이 정치지형의 변화와 단일세력에 따라 어떻게 향방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상에서 수철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그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가려 한다.

## 【참고 문헌】

## 1. 저서

-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 1919.
- 李基東,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古代篇, 亞細亞文化社, 1984.
-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1993.
- 최근영, 『통일신라시대의 지배세력연구』, 신서원, 1993.
- 黃有福·陳景富(權五哲 譯), 『韓-中佛教文化交流史』, 까치, 1995.
-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 이도학, 『진훤이라 불러다오』, 푸른역사, 1998.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崔英成, 『孤雲思想의 脈』, 심산출판사, 2008.

## 2. 연구 논문

- 金包光,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教』 49, 1928.
-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 1938.
- 權相老, 「韓國禪宗略史」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教學論文集』, 1959.
- 崔炳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大丘史學』 22, 1983.
- 金貞淑, 「金周元 世系의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1984.

-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 權惠永, 「新羅 弘覺禪師 碑文의 復元試圖」 『伽山 李智冠 스님 華甲紀念 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 1992.
- 鄭炳三,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1992.
- 李啓杓, 「新羅 下代의 迦智山門」 『全南史學』 7, 1993.
- 추만호, 「나말려초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國史館論叢』 52, 1994.
- 權惠永,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49, 1996.
- 曹凡煥,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敎政策」 『新羅文化』 16, 1999.
- 鄭東樂, 「通曉 梵日(810-889)의 生涯에 對한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24, 2001.
- 조범환, 「후백제 건원정권과 선종」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전북전통문화연구원 소(주류성), 2001.
- 韓基汶,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a.
- 한기문, 「高麗時期 密陽 瑩原寺의 所屬變化와 그 背景」 『金潤坤 敎授 定年紀念 論叢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2001b.
- 황선영, 「신라하대 金憲昌 亂의 성격」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權英五,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大丘史學』 76, 2004.
-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 全基雄, 「憲康王代의 정치사회와 ‘處容郎忘海寺’條 설화」 『新羅文化』 26, 2005.
- 조범환,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 26, 2005.
- 김상현, 「9세기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006.
- 김용선, 「玄昱·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한기문, 「新羅 下代 眞鑑禪師의 活動과 梵唄 敎化의 意義」 『大丘史學』 89, 2007.
- 김양정, 「道義國師의 生涯와 行跡」 『大覺思想』 11, 2008.
- 김창겸,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언」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2008.
- 金興三, 「新羅末 幅山門 梵日과 金周元系 관련설의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 이영호, 「대가야의 멸망과 고령지역의 변화」 『고령문화사대계』 I (역사편), 2008.
- 정선종, 「실상사 수철화상비 음기」 남도불교문화연구회 발표요지문, 2008.

-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昱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14, 2008.
- 朱甫暉,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 權惠永, 「新羅 道義禪師의 初期 法系와 億聖寺」 『新羅史學報』 16, 2009.
- 裴宰勳,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2009.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정선종,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조범환,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 Abstract

## Buddhist Monk Sucheol (815~893) and the Silla Royal Court

Jung, Dong-Rak

Sucheol was born in Gyeongju in 815. He became a Buddhist monk in 829, and in the early 830s met and became a disciple of Hongcheok who was then visiting Gyeongju. Later, Sucheol went to Mt. Sorak (Jinjeon Temple) for the purpose of visiting Doeui. However, he soon came to Mt. Namak (Silsang Temple) and received approval from Hongcheok. Then, in 835, he was fully ordained as Buddhist monk at Bokcheon Temple in Myeongju.

Afterwards, when Hongcheok passed away around 840, Sucheol built a pudo (bell-shaped pagoda) and pagoda monument for his master Hongcheok under King Munseong's support and greatly expanded Silsang Temple. He thus became connected with the Silla royal family. King Heonan later embraced Sucheol's teachings but it was from the reign of King Gyeongmun that Sucheol became genuinely affiliated with the Silla royal family. Especially, he was even appointed as the state monk during the reign of Queen Jinseong. Royal families related to King Gyeongmun attempted to secure stability and legitimacy of the royal family by connecting with the Zen monks as well as Doctrinal Buddhism. Also, they got aligned with Sucheol due to the fact that Sucheol was a Zen monk of Jingol nobility background and a successor to Hongcheok, and in order to attract the people

of Namwon area through Silsang Temple. Sucheol, for his part, intended to maintain and develop his Silsang School through the royal family and, under influence from Hongcheok, cooperated with the royal family.

Sucheol passed away in May of 893 and a pagoda monument in his honor was erected around 905. The Silla royal family built the Sucheol Monument in Silsang Temple. There reason therefor was that the Silla royal family wanted to embrace Silsang Temple and Silsang School as pro-Silla and considered the popular mood in the Namwon area which was about to defect to Later Baekje. Also, disciples of Sucheol intended to bring prestige to themselves by erecting a monument for their master at the headquarters of their school.

The Silsang School led by Sucheol's disciples was still on intimate terms with the Silla royal family around 905. In contrast, Monk Pyeonwoon of Anbong Temple, another disciple of Hongcheok, was connected to Gyeonhweon. When Pyeonwoon passed away around 910, the Pyeonwoon Pudo was erected with the support of Later Baekje. This seems to show that Silsang School was been divided into Sucheol group, succeeding to Sucheol, and Pyeonwoon group around 905. Sucheol group had been leading Silsang School until 905 and maintaining its traditional, pro-Silla position. When Gyeonhweon strengthened its power afterwards, Pyeonwoon group got affiliated with Gyeonhweon and converted to Pro-Later Baekje.

Key Words : Period of late Silla(新羅下代), Silsang School(實相山門), Zen Buddhism(禪宗), Hongcheok(洪陟), Sucheol(秀澈), Pyeonwoon(片雲)

논문 투고일 : 2009. 10. 10  
 게재 확정일 : 2009. 11. 28

심사 완료일 : 2009. 11. 15